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YahooFinance: 미 물가 상승 리스크 심각…연준, 금리 인상 배제 안 해
- WSJ: 미 1분기 GDP 하향 조정…2%→1.6%
- Bloomberg: 최근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 달 만에 최고…21만 5천 건
- Bloomberg: 신임 연준 의장의 도전: 금리 인상 기대감 억제 과제 직면

[미국 금융]
- WSJ: 앞으로도 반도체 주가 랠리 계속된다

[이란 전쟁]
- Bloomberg: 이란·미국, 불안한 휴전 속 상대방에 “위반” 비난
- Bloomberg: 호르무즈에 상업용 선박 운항 끊긴 상태

[트럼프 행정부]
- Politico: 인공 지능 규제 여부 놓고 트럼프 행정부 견해차

[주택]
- YahooFinance: 향후 5년간 모기지율 어떻게 되나?

[자동차]
- CNBC: 신차 구매 월 할부금 1천불 넘는다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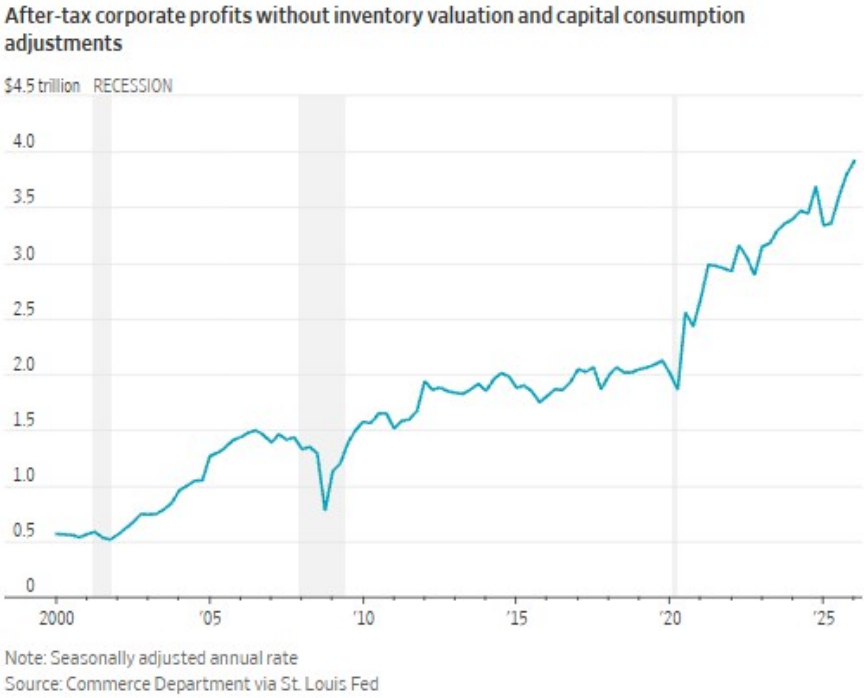
YahooFinance: Fed's inflation gauge heated up in April, cementing that interest rates will remain steady for now
미 물가 상승 리스크 심각…연준, 금리 인상 배제 안 해

- 중동 갈등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물가 지표인 4월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지수가 3.8% 상승했다. 근원 PCE는 3.3% 상승했다. 이는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,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으나 지난달보다 상승 폭이 컸다.
- 이에 따라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일 때까지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. .
- 현재 연준 위원들은 고용 악화보다 '물가 상승 리스크'를 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,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되 인플레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.

기사

WSJ: GDP Growth Revised Lower for First Quarter
미 1분기 GDP 하향 조정…2%→1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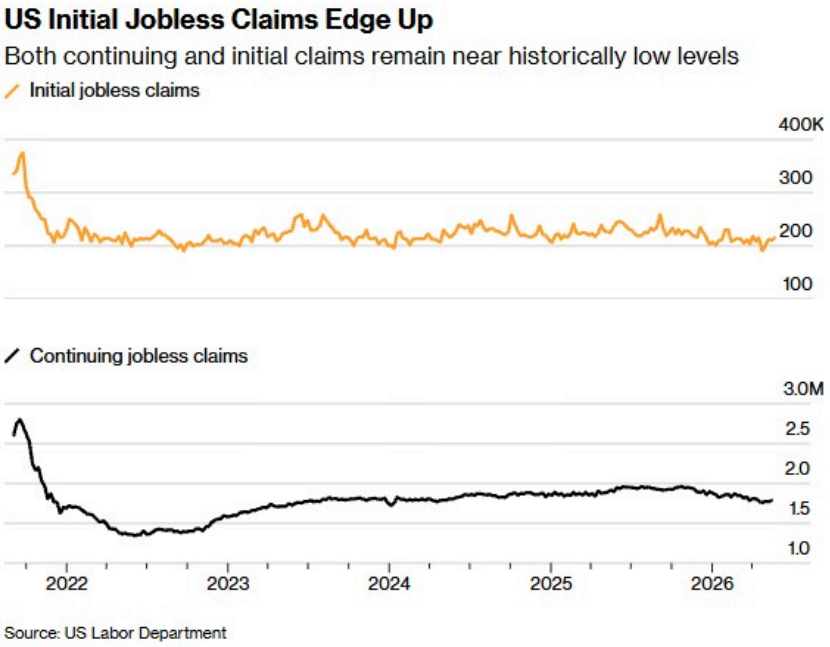
- 오늘 목요일 연방 상무부는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 연율을 당초 잠정치인 2.0%에서 1.6%로 하향 조정했다.
- 하향 이유로 주로 기업들의 투자 감소와 민간 소비자들의 지출 둔화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.
- 실제로 이 기간 기업들은 재고를 쌓는 속도를 이전보다 늦추었으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출 역시 당초 시장 기대보다 약했다.



기사

Bloomberg: US Jobless Claims Tick Up to 215,000, Highest in a Month
최근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 달 만에 최고…21만 5천 건

- 지난주 미 실업청구 건수는 약간 상승했다. 그러나 안정적인 고용 시장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.
- 연방 노동국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5월 23일 끝난 주간에 미 실업청구 건수는 5천 건 늘어난 21만 5천 건을 기록했다.
- 전체 실업수당을 받는 건수는 1백79만 건을 기록했다.
- 최근 대형 테크 회사들의 감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업청구 건수는 다소 감소했는데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.



기사

Bloomberg:Warsh's New Challenge: Containing Fed Hawks as Inflation Simmers
신임 연준 의장의 도전: 금리 인상 기대감 억제 과제 직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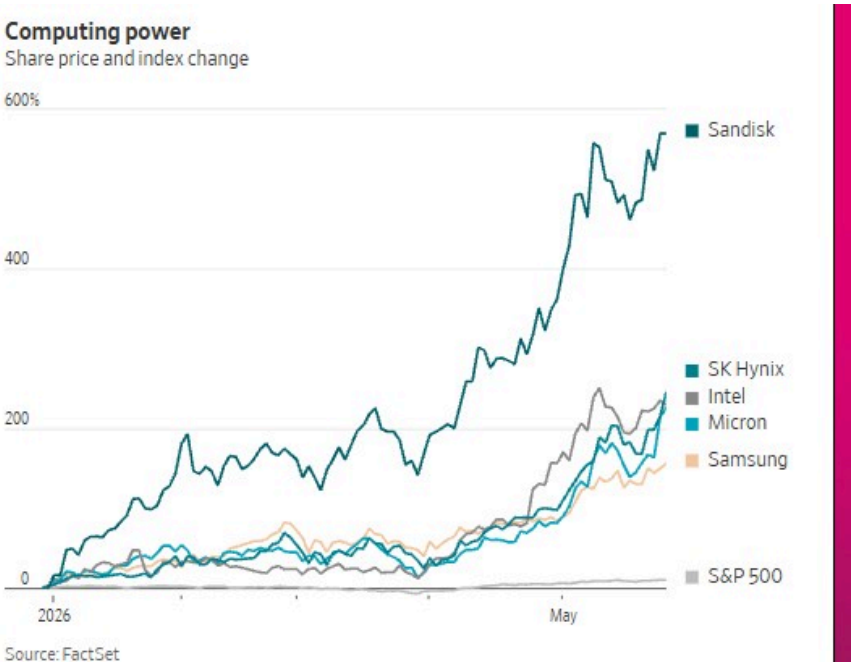
- 연준 신임 의장 케빈 워시가 동료 위원들이 인플레를 경고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기대감 확산을 억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.
-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는 4월까지 12개월간 3.8% 상승해 목표치인 2%를 웃돌았고, 에너지 비용도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.
- 워시 의장을 의장으로 지명했던 트럼프는 신임 의장에게 "독립적으로 행동하라"면서도 금리가 "매우 신속하게" 인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워시는 금리 정책을 주도하는 동시에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이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The Chip Rally Is at $5.7 Trillion and Counting. How Much Further Can It Go?
앞으로도 반도체 주가 랠리 계속된다

-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(SOX)가 2026년 들어 82%나 급등하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연초 랠리를 기록했다.
-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AI 관련 칩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최근 주가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.
- 일부 분석가들은 주가가 이미 단기간에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, 기업들의 이익이 그 이상으로 급증했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들이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진단한다.



기사

[이란 전쟁]

Bloomberg: Iran, US Accuse Each Other of Truce Breach With No Deal in Sight
이란·미국, 불안한 휴전 속 상대방에 “위반” 비난

- 이란과 미국이 3개월간 이어온 전쟁의 위태로운 휴전 체제를 두고 서로 상대방이 협정을 위반했다며 비난하고 있다.
- 이번 갈등은 미국이 이번 주 들어 두 번째로 이란 군사 기지를 타격한 이후 불거졌다.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, 미군은 상선으로 향하던 이란 드론 4대를 격추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발사 기지를 타격했다.
- 이 관계자는 이번 공습이 방어적 조치였으며 휴전 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. 양국은 현재 대회를 진행중인데 공식적으로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.
- 관련 기사가 수시로 바뀔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기사

Bloomberg: Merchant Ships Desert Strait of Hormuz Amid Renewed US Strikes
호르무즈에 상업용 선박 운항 끊긴 상태

- 상업용 선박 운항사들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사실상 끊긴 것으로 오늘 목요일 나타났다.
- 미국이 이란 군사 기지에 대해 두 번째 공습을 감행한 후 긴장이 커지면서 오늘 목요일 오전 해당 수로를 통과하는 상선은 단 한 척도 목격되지 않았다.
- 트럼프는 그 어떤 단일 국가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밝혔으며, 이는 이란과의 항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.

기사

[트럼프 행정부]

Politico: Factions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 wrestle over how to handle AI
인공 지능 규제 여부 놓고 트럼프 행정부 견해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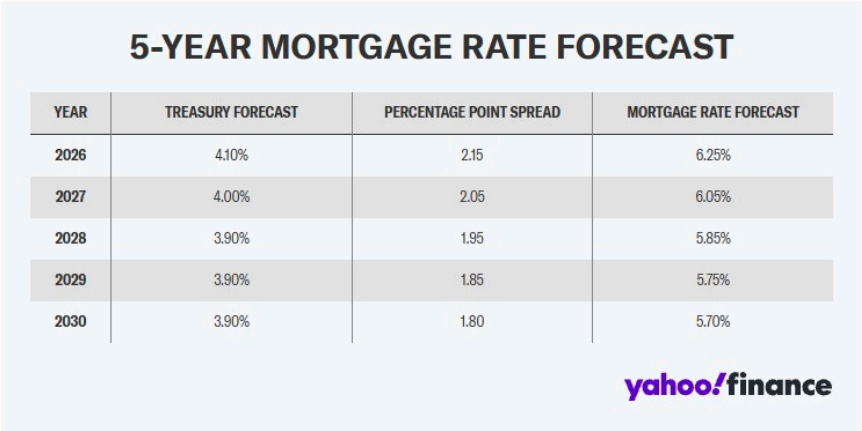
- 트럼프가 안정성과 독점 방지를 강조하는 조이든의 AI 행정명령을 5월 21일 전격 폐기하면서, 규제 방향을 둘러싼 백악관 내부의 갈등이 드러났다.
-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크게 세 진영으로 나뉜다. David Sacks 전 AI 최고책임자 측은 대중국 경쟁력 확보를 위해 '규제 완화'를 주장한다. 그는 규제가 신생 산업에 부담을 준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해 막판에 행정명령 폐기를 이끌어냈다.
- 반면 Pete Hegseth국방장관과 Emil Michael 차관 등 '신중론(규제 강화)' 진영은 기술이 중국 등 적대국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강력한 장벽을 요구한다. 이들은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'AI 매파'로 분류되고 있다.

기사

[주택]

YahooFinance: Mortgage rate predictions for the next 5 years: Where experts believe rates will be by 2030
향후 5년간 모기지율 어떻게 되나?

- 연준이 금리를 올해말까지 동결하고 이후 인하하면서 2030년까지 모기지율은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. 긍정적일 경우 5%대 진입.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가 지속된다면 6% 후반대의 높은 금리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.
- 아래는 5년간 국채 금리와 모기지율 도표다.



기사

[자동차]

CNBC: More monthly auto loan payments are above $1,000, and most are not for luxury models

신차 구매 월 할부금 1천불 넘는다

- 미국 신차 구매자 5명 중 1명꼴로 매달 $1,000가 넘는 자동차 할부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관련 Experian Automotiv의 조사에 따르면 1분기 자동차 대출 500만 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, 신차 대출의 19%가 월 납입금 $1,000 이상이었다. 특이한 점은 이 중 74%가 고급 브랜드가 아닌 일반 대중 모델이라는 사실이다.
- 차량 가격 상승과 금리 부담이 일반인 운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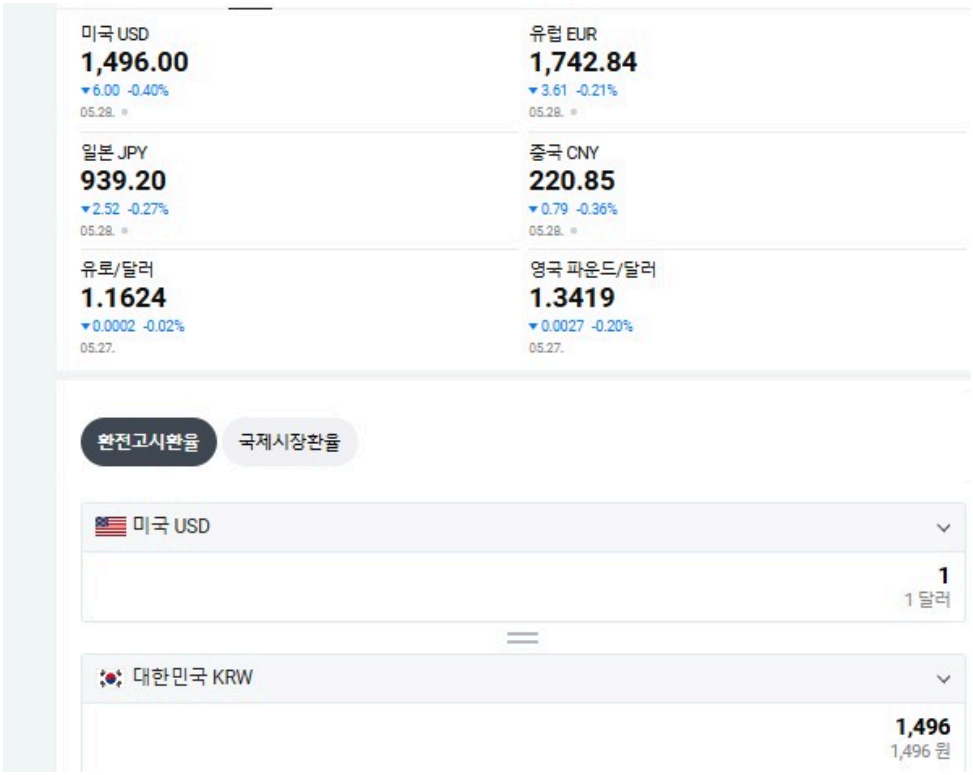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0,693.90	+49.5	+0.10%
US 500	7,557.40	+36.9	+0.49%
Dow Jones	50,709.77	+65.49	+0.13%
S&P 500	7,557.80	+37.44	+0.50%
Nasdaq	26,845.00	+170.27	+0.64%
S&P 500 VIX	15.93	-0.36	-2.21%
Dollar Index	98.98	-0.169	-0.17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25/32	4.996	-0.020
10-Year Note	4.375	2/32	4.468	-0.020
7-Year Note	4.125	1/32	4.308	-0.021
5-Year Note	4.125	-15/32	4.173	-0.007
3-Year Note	3.875	0/32	4.082	-0.019
2-Year Note	4	0/32	4.037	-0.004
1-Year Bill	0	0/32	3.790	-0.005
6-Month Bill	0	0/32	3.760	0.000
3-Month Bill	0	0/32	3.673	0.000
1-Month Bill	0	0/32	3.674	-0.001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